연꽃 든 석가모니불, 괘불로 본다



공주마곡사의 '석가모니괘불탱(보물 제1260호)'

국립중앙박물관 2019 괘불전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서화관 불교회화실 4월 24일~10월 20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상설전시장 2층 불교회화실에서 공주 마곡사의 '석가모니괘불탱(보물 제1260호)' 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열어온 '한국의 괘불전' 의 열네 번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마곡사 괘불은 1687년 5월, 120여 명이 넘는 대인원이 참여해 조성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마곡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중창이 있었고, 중창불사 중에 마곡사 괘불이 조성됐다. 마곡사 대중과 신도 60여 명은 바탕천, 금, 아교, 먹 등 괘불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물목을 시주했다. 불화는 1670년 마곡사 대웅보전 단청불사에 참여했던 능학(能學) 스님을 비롯해 계호(戒湖) · 유순(唯順) · 처묵(處默) · 인행(印行) · 정인(精印) 스님이 함께 조성했다.

여섯 명의 화승이 함께 조성한 마곡사 괘불은 전체 높이 11m, 너비 7m, 무게 174kg의 괘불로 30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다. 광배를 장식한 꽃, 보관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는 봉황, 영롱하게 반짝이는 구슬과 다채로운 문양은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괘불 화면 상단에는 13개의 붉은 원을 그리고 안에 고대 인도의 분자인 범어를 적었다. 주변은 용과 꽃으로 장식했고, 복장물(腹藏物)을 복장하는 불복장 의식이나 불보살의 눈을 그려 상을 완성하는 점안(點眼) 의식처럼, 부처의 심오한 가르침이 담긴 범자나 진언(眞言)을 그려서 11미터 화면에 생명력을 부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곡사 괘불의 주인공은 보관과 장식으로 장엄한 석가모니불이다. 거대한 화면에는 연꽃을 든 석가모니불과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가득 차있다.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제자 가섭과 마음이 통해 가르침을 전했다는 염화시중(拈花示衆)에서 유래했다. 부처님은 가섭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진리에 도달한 마음, 글자로는 온전히 진리가 표현되거나 전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문자가 아닌 참선수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선종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마곡사 괘불처럼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든 석가모니부처님을 그린 괘불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비슷한 도상임에도 '노사나불', '미륵불' 등 여러 존상으로 불린다. '마곡사 괘불' 은 본존 두광 안에 구획된 붉은 방제(傍題) 안에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이란 존명이 적혀 있어 본존이 석가모니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존뿐 아니라 각 인물 옆에도 존명을 적은 방제가 있다. 괘불에 그려진 35명이 누구인지 방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유사한 도상을 해석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괘불은 평소 함에 넣어 법당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사찰의 큰 행사 때에만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평소에 보기 힘든 마곡사의 대형 괘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와 연계하여 세계문화유산 마곡사의 연혁, 사찰에 소장된 불상과 불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전시도록을 발간했다. 마곡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전시품 마곡사 괘불 외에도 마곡사 소장 불상, 불화 사적 등을 수록했다.

도록에서는 문헌 기록과 함께 영산전 · 대광보전 · 대웅보전 등 마곡사 주요 전각에 봉안된 불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18세기 후반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한 불화 조성과 이를 담당한 화승 그룹을 새롭게 조명했다.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라 불리며 금호당(錦湖堂) 약효(若效, 1846~1928)를 비롯해 뛰어난 근대기 화승을 키워냈던 중심지였다.

'마곡사 괘불' 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5월 15일(수)과 8월 7일(수), 9월 25일(수), 10월 2일(수) 총 4회 진행한다. (02)2077-9000.

판화로 펼친 나한의 세계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나한의 세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처님오신날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나한의 세계' 를 개최한다.

2019년 강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열리는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수집품 6천여 점 중에서 나한과 관련된 한국 · 중국 · 일본 · 티베트의 불화판화를 비롯하여 나한 삽화가 들어있는 고서와 삽화를 찍었던 판목 등 70여 점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목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중국 당대 관휴의 16나한도를 건륭황제 때 항주 성인사에 제작된 석각비에서 탁본한 작품 전부와 티베트 덕격인경원이 자랑하는 16나한고사도 목판화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오백나한도 판화를 비롯해 채색으로 만들어진 16나한도 판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초로 공개된 오백나한도 목판화는 일본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오백나한도 목판화로 고려불화 중 가장 아름다운 오백나한도로 알려진 일본 교토지은원의 오백나한도 불화(고려 14C, 188.0×121.4㎝)를 모본으로 에도시대에 다시 그리고 판각한 목판화(일본에도 19C, 186.5 ×120.5cm)이며, 그 크기도 원본과 불과 1㎝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대형 목판화로, 그림의 구도와 배치도 고려불화를 충실히 따라 표현했을 뿐 아니라 고려불화의 퇴색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초판 인출본으로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오백나한도목판화(186.5 ×120.5cm).

오백나한도 목판화는 고판화박물관이 3년 전에 옥션을 통해 수집하였으나, 3폭으로 인출된 대형 판화라, 그동안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번 전시를 위해 표구 장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을 모본으로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판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작품은 발견되지 않아 동아시아 판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선학 관장은 "각국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국가 간의 전시 교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아름다운 고려 불화를 보고 싶어도 점점 깊숙이 수장고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 때 고려불화 원본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목판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박물관은 특별전의 유물을 보다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전 기간 동안 1박 2일 과정의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전문가와 가족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시민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을 특별전과 더불어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33)761-7885.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사진협회 제24회 회원전

'석등, 당간지주'

서울 불일미술관 5월 6~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7월 15~21일



박정숙 作, 화엄사 봄날 석등(국보 제12호)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최우성)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제24회 전국 회원전 '석등, 당간지주' 와 제13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함께 개최한다. 전시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고, 이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7전시실에 열린다.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 석등과 당간지주이다. 회원들이 1년 동안 전국의 사찰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전국의 수많은 석등과 당간지주들은 역사의 고된 세월을 견디어 왔다. 힘겨운 세월 속에서도 성보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은 석등과 당간지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석등과 당간지주가 품고 있는 세월의 모습을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이 렌즈를 통해 조명한다. 수도암 석등(조규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공진미) 등 새롭게 탄생한 석등과 당간지주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제5회 불교무용대전

서울 마로니에공원 5월 1일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5월 1일 서울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제5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불교무용대전 결선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전통무용 · 창작무용 · 해외무용 등 7개의 선정된 예술단체가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70분간 진행된다.

올해 불교무용대전은 성균소극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9개 국내외 예술단체가 참가했다. 4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5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무용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02)747-5035.

박재완 기자



